

##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정미현<sup>†</sup>

군산간호대학교

(2019년 3월 4일 접수: 2019년 3월 4일 수정: 2019년 3월 28일 채택)

###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Mihyun Jeong<sup>†</sup>

*Kunsan College of Nursing*

*(Received March 4, 2019; Revised March 4, 2019; Accepted March 28, 2019)*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J소재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능력,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지각된 사회적 지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375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J province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x indexed of causal model among covert narcissism,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covert narcissism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mh@kcn.ac.kr](mailto:jmh@kcn.ac.kr))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mediating effects in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urth,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interpersonal competence in order to strengthe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Perceived Social Suppor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는 최첨단 기술의 도입과 접목으로 인한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들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환경변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인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간호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전문직으로서 견비해야 할 간호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보건복지부[1]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는 약 49.6%(2017년 기준)에 불과하며,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은 33.9%로 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확대, 3학년 편입 허용과 고가의 실습장비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

간호학과를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자신의 의지보다는 외적 요인에 의해 선택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선택에 대한 동기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결정성이 낮은 편이며, 특히,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호실무현장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조기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동기의 내면화를 위해

서는 개인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는 요소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필요하다[3].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에 기반한 행동의 기준과 평가를 위한 개념들을 제공하며[4], 인간, 사물, 상황에 대한 간호학적 해석과 견해들로 구성된 간호의 근본적인 사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3].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재직의도와도 관련되어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은 낮아 간호업무의 효율성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요인이다[5].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개인의 직업생활에서도 발달하지만, 학교교육과정에서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과 인식을 통해서 발전되고 변화하는 속성이 있으므로[6], 신입생 시기부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전략수립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게 나타나 상관관계를 이루는 변인들도 보고되고 있다[8].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자아만족을 위한 강력한 욕구와 타인과 비교하여 뛰어나 보이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점점 경쟁적이고 개인주의화 되며, 스스로를 더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드러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적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9]. 미국의 문화비평가인 Dombeck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특별한 병적 증상이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전반에 만연하게 드

러난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은 특별하다는 허영심과 자아도취, SNS와 셀카에 빠져 관심 끌기에 매몰된 현상들은 표현화된 나르시시즘의 일종으로 대중적 문화현상의 변화라고 하였다[10].

이처럼 최근 자기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Ⅲ)에 자기에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진단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DSM-Ⅳ-TR[11]에서는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대해 자신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요구한다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 입는 취약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로 분류하고 있다. 경험론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우울하여, 외현적 자기에보다 더 역기능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2]. 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우울[13], 공격성[14], 대인공포[15], SNS중독경향성[16] 사회불안[17]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내현적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학업성취 및 진로준비행동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심리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자기중심성/착취요인으로 인해 타인은 수단적 존재이며,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나 자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진정한 지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내현적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낮은 편이다[19]. 그러나 우울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심리적 부적응 등의 부정적인 변인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연구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20],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의사전달과 상호의무의 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한다[21].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규정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도

움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며,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심리적 안녕에 예언적 역할을 한다. 규정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실제로 받는 지지적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만, 개인이 지지를 지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규정된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22].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며[23], 대학생생활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24].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자아정체감이 높아 보다 쉽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학생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감을 경험한다[25].

간호대학생들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실습생 및 보건의료인들과의 효과적이고,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의 습득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적응력과 임상실습의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학업성취도에도 기여한다[26]. 졸업 후에는 간호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주며[27], 대인관계능력 속에서 습득되는 지지와 격려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함으로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28].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은 중간정도이거나, 오히려 일반대학생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29]. 이러한 결과는 미숙한 대인관계로 이어지고 상호간 의사소통 장애를 발생시켜 간호대학생들의 주요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28],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 기여요인으로 확인된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을 위해서는 관념의 형성초기에 해당되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구의 의의는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그간 보고된 선행연구[7][8]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를 시

도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애적 성향정도와 이 요인이 그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모형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체계에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 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1.3.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9.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지역에 위치한 3곳의 간호학과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수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5명(98.7%)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75명 중 남학생 54명(14.4%), 여학생 321명(85.6%)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18~59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23.33(SD=5.63)세이었다. 표본의 크기에 대한 근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6개로 총 146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의 375명은 표본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내현적 자기애 36문항, 간호전문직관 16문항, 지각된 사회적 지지 12문항, 대인

관계능력 31문항으로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 2.3.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에는 Akhtar와 Thomson[1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Gang과 Chung[30]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Seo[31]가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 6개 하위영역이며, 목표불안정(7문항), 착취(8문항), 인정욕구(7문항), 불안정과민(5문항), 과민(6문항), 소심(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4$  이었다.

###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3]이 개발한 도구를

Seo[3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6$  이었다.

### 2.3.3.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Cutrona와 Russell[33]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Provision Scale, SPS)를 Yoo[34]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Yoo[34]가 사용한 도구는 총 24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은 애착(4문항), 사회적 소속감(4문항), 돌봄의 기회(4문항), 가치 재인정(4문항), 도움에 대한 믿음(4문항), 조언(4문항) 등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N=375)

Variable	N	Cronbach's Alpha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926
	Exploitation	.857
	Desire for recognition	.792
	Unstable irritability	.828
	Hypersensitive	.864
	Timid	.774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808
	Social recognition	.843
	Professionalism of nursing	.760
	Role of nursing service	.681
Perceived Social Support	Attachment	.793
	Social integration	.833
	Opportunity for nurturance	.844
	Reassurance of worth	.850
	Reliable alliance	.926
Interpersonal Competence	Guidance	.839
	First relationship	.813
	Claim of rights	.874
	Reveal oneself	.740
	Emotional supporting	.89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855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성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문항 제거시 신뢰도가 전체 신뢰도 보다 높은 6개의 하위영역별로 각 2 문항씩을 제거하였다. 문항이 전체 척도가 동일한 것을 판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최소값 .515, 최대값 .818로 나타났고, 원 도구의 문항 중 12문항을 도구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2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3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34 이었다.

#### 2.3.4.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측정은 Buhrmester 등[35]이 대인관계검사(Inters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고, 이를 Kim과 Kim[36]이 변안하여 Park 등[3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 5개의 하위영역이며, 처음관계 맺기(5문항), 권리 주장(6문항), 자기노출(7문항), 정서적지지(7문항), 대인갈등다루기(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3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0 이었다.

#### 2.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의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정규화하기 위해 평균에서 표준편차와의 거리를 절대값 3 이상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둘째, 자료의 정규성 분석을 위해 각각의 관찰변인의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10을 넘을 경우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변량 첨도 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

규성을 벗어나는 경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chi^2$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GFI, PGFI, RMSEA, NFI, IFI, CFI, TLI, PRATIO, PNFI, PCFI 등을 활용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설문작성 도중이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부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즉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각 하위요인인 내현적 자기애,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측정된 기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각 변수들은 5점 만점 척도로 환산된 평균점수는 내현적 자기애 3.29( $\pm 0.56$ )점, 간호전문직관 2.20( $\pm 0.58$ )점, 지각된 사회적 지지 4.14( $\pm 0.70$ )점, 대인관계능력 2.17( $\pm 0.44$ )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조사하였다.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29~1.514로 절대값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93~2.203으로 절대값 8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에 대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75)

Variable	M±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s	S,E	Statistics	S,E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3.32±0.97	-.043	.126	-.603	.251
	Exploitation	3.86±0.70	-.715	.126	.642	.251
	Desire for recognition	2.63±0.64	.084	.126	.152	.251
	Unstable irritability	2.90±0.86	.145	.126	-.093	.251
	Hypersensitive	3.51±0.87	-.337	.126	-.201	.251
	Timid	3.43±0.90	-.162	.126	-.563	.251
	Total	3.29±0.56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1.93±0.61	.249	.126	-.393	.251
	Social recognition	2.83±0.88	-.152	.126	-.192	.251
	Professionalism of nursing	1.90±0.65	.262	.126	-.650	.251
	Role of nursing service	1.92±0.73	.362	.126	-.469	.251
	Total	2.20±0.58				
Perceived Social Support	Attachment	4.36±0.85	-1.514	.126	2.203	.251
	Social integration	3.67±0.90	-.580	.126	.295	.251
	Opportunity for nurturance	4.33±0.81	-1.393	.126	1.994	.251
	Reassurance of worth	4.20±0.85	-1.075	.126	.778	.251
	Reliable alliance	3.94±0.88	-.744	.126	.366	.251
	Guidance	4.33±0.84	-1.385	.126	1.676	.251
	Total	4.14±0.70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2.18±0.62	.029	.126	-.218	.251
	Claim of rights	2.37±0.72	.617	.126	.566	.251
	Reveal oneself	2.38±0.55	-.031	.126	.145	.251
	Emotional supporting	1.94±0.54	.101	.126	-.304	.251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02±0.54	.040	.126	-.134	.251
	Total	2.17±0.44				

### 3.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연구변인의 상관관계 행렬은 [Table 3]과 같으며,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는 간호전문직관( $r = -.203, p < .001$ )과 대인관계능력( $r = -.359, p < .001$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 $r = .607, p < .001$ )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전문직관( $r = .392, p < .001$ )과는 정적 상관이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 $r = -.249,$

$p < .001$ )과 대인관계능력( $r = -.444, p < .001$ )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 3.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chi^2$  검증은 사례 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hi^2$  검증은 해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한 적합도 검증에 있어서 절대적합지수로 GFI, PGFI, RMSEA를 활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NFI,

Table 3.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Covert Narcissism,	Nursing Professionalism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Social Support
Covert Narcissism,	1			
Nursing Professionalism	-.203*** ( $<.001$ )	1		
Interpersonal Competence	-.359*** ( $<.001$ )	.392*** ( $<.001$ )	1	
Perceived Social Support	.607*** ( $<.001$ )	-.249*** ( $<.001$ )	-.444*** ( $<.001$ )	1

\*\*\*  $p<.001$ , \*\*  $p<.01$ , \*  $p<.05$

IFI, CFI를, 간명적합지수로는 PRATIO, PNFI, PCFI를 활용하였다. 초기모형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공분산을 설정하여  $\chi^2$ 값을 낮추어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chi^2$ 값은 852.847(df=183,  $p=.000$ )로 모형이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chi^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간명도와 적합도를 높이는 모형수정은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를 활용하였다. 수정지수 활용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에서 e2(과민)과 e1(소심) 사이의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 값이 -.043으로 나타났고, e3(불안정과민)과 e1(소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8로 나타났고, e3(불안정과민)과 e2(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41로 나타났고, e4(인정욕구)과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108로 나타났고, e5(착취)와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76으로 나타났고, e5(착취)와 e4(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68로 나타났고, e6(목표불안정)과 e4(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8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서 e7(처음관계맺기)과 e8(권리주장)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42로 나타났고, e7(처음관계맺기)과 e9(자기노출)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

변화가 .04로 나타났고, e7(처음관계맺기)과 e10(정서적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22로 나타났고, e8(권리주장)과 e9(자기노출)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53으로 나타났고, e8(권리주장)과 e11(대인갈등다루기)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42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서 e12(전문직자아개념)과 e14(사회적인식)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42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e20(도움에 대한 믿음)과 e22(가치재인정)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6으로 나타났고, e20(도움에 대한 믿음)과 e23(조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26으로 나타났고, e21(사회적소속감)과 e23(조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을 때, 모수변화가 .033으로 나타났다[Table 4].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향상하였다. GFI가 .806에서 .855로, NFI가 .809에서 .856으로, IFI가 .844에서 .889로, CFI가 .843에서 .887로 상승하였다[Table 5]. CFI와 TLI가 .9이하로 나타났지만 만족할 만한 적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이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적합도가 판단된 수정모형의 경로모형을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4. Modification of the model

Covariance			M.I.	Par Change
e2	↔	e1	5.271	-0.043
e3	↔	e1	12.063	0.08
e3	↔	e2	6.184	0.041
e4	↔	e3	28.301	0.108
e5	↔	e3	13.854	-0.076
e5	↔	e4	11.626	0.068
e6	↔	e4	12.294	-0.085
e7	↔	e8	5.691	0.042
e7	↔	e10	5.662	-0.022
e7	↔	e9	11.805	0.04
e8	↔	e9	12.765	0.053
e8	↔	e11	10.164	-0.042
e10	↔	e11	5.915	0.016
e12	↔	e14	6.772	0.042
e20	↔	e22	13.204	-0.06
e20	↔	e23	4.935	0.026
e21	↔	e23	7.239	0.033

Table 5. Comparison of fit index between default model and modified model

Classification		Criteria of fitness	Default model	Modified model	Analysis
Absolute Fit Index	$\chi^2$	> .05	852.847 (df=183, p=.000)	645.596 (df=166, p=.000)	unapplied
	GFI	> .90	.806	.855	good
	PGFI	> .50, .60	.638	.614	fitness
	RMSEA	< .10	.099	.088	fitness
Incremental Fit Index	NFI	> .90	.809	.856	good
	IFI	> .90	.844	.889	good
	CFI	> .90	.843	.887	good
	TLI	> .90	.820	.858	good
Parsimonious Fit Index	PRATIO	> .50, .60	.871	.790	good
	PNFI	> .50, .60	.705	.676	fitness
	PCFI	> .50, .60	.734	.702	fi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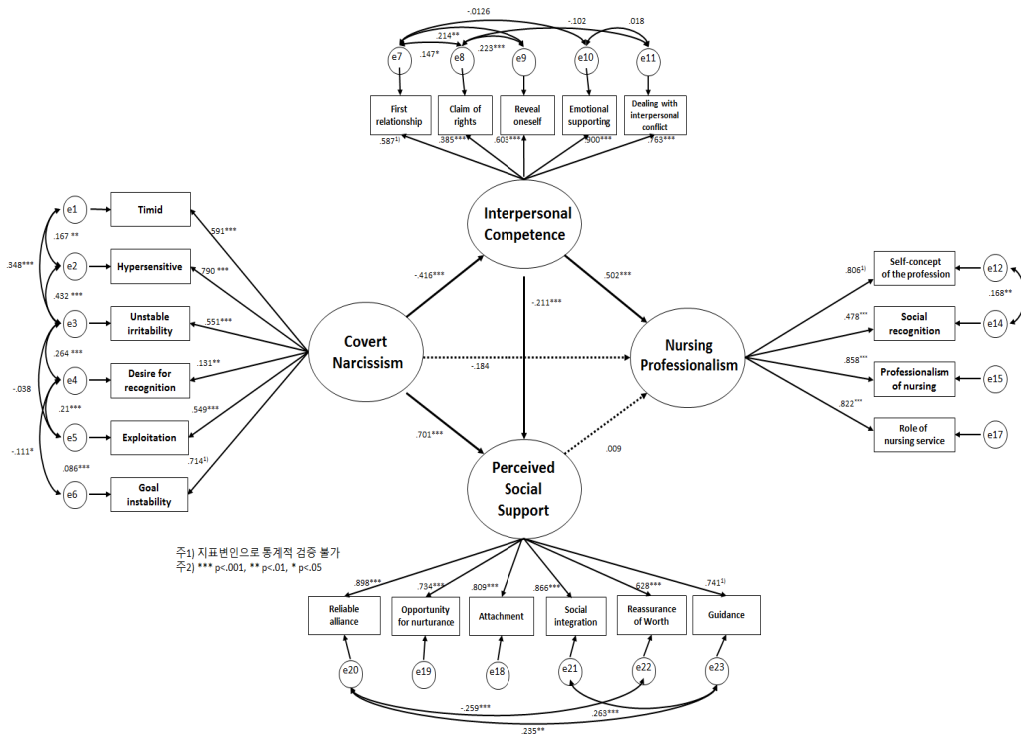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model.

Table 6.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ing of structure model

Path	B	S.E.	$\beta$	t
Covert Narcissism → Nursing Professionalism	-.131	.077	-.184	-1.708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Competence	-.220	.040	-.416	-5.516***
Covert Narcissism → Perceived Social Support	.636	.066	.701	9.645***
Interpersonal Competence → Perceived Social Support	-.362	.092	-.211	-3.952***
Interpersonal Competence → Nursing Professionalism	.680	.108	.502	6.321***
Perceived Social Support → Nursing Professionalism	.007	.085	.009	.086

\*\*\*  $p < .001$ , \*\*  $p < .01$ , \*  $p < .05$

### 3.4. 연구가설 검증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Table 6]과 같다. 내현적 자기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84$ ,  $t = -1.708$ ,  $p = .088$ ). 따라서 <가설 1>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기에( $\beta = -.416$ ,  $t = -5.516$ ,

$p < .001$ ),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내현적 자기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701$ ,  $t = 9.645$ ,  $p < .001$ ).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11$ ,  $t = -3.952$ ,  $p < .001$ ).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기에( $\beta = .502, t = 6.321, p < .001$ ),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기에( $\beta = .009, t = .086, p = .932$ ) <가설 9>는 기각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8].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고,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이 억제효과를 갖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억제효과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비표준화계수값(a),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계수값(b)의 곱(ab)이 <0으로 검증할 수 있다. 억제효과 검증결과 대인관계능력은  $(-.283) \times .489 < 0$ 로 억제효과에 해당하였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5>, <가설 6>은 기각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간호전문직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

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집된 간호대학생 375명의 자료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한 후 최종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평균 3.29점(5점)이며, 착취영역의 평균은 3.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한 Jang[39]의 평균 2.58점, Kim과 Hong[40]의 평균 2.70점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착취영역은 대상자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필요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겠다는 심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문제에 있어 타학문 전공자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경험하는 치열한 경쟁의식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가 강화될 수 있기에 간호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공익적 마인드의 함양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2.20점(5점)으로 간호의 전문성영역 평균이 1.9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Kang[7]의 간호대학생들의 평균 3.93점, Hwang과 Shin[8]의 평균 3.91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에서 간호의 전문성 점수가 가장 낮고, 사회적 인식점수가 높았던 결과는 Hwang과 Shin[8]의 연구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인식정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 정부기관을

Table 7. Bootstrapping method analysis result

Path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95%	
			LSL	USL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Competence → Nursing Professionalism	-.1312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Competence → Perceived Social Support → Nursing Professionalism	-.0073	.0087	-.0302	.0045
Covert Narcissism → Perceived Social Support → Nursing Professionalism	-.0403	.0356	-.1101	.0293
Interpersonal Competence → Perceived Social Support → Nursing Professionalism	.0549	.0396	-.0086	.1468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 등이 공론화되고, 정책들이 수립됨에 따라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개선되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학문의 특성과 고유한 간호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평균점수는 4.14점(5점)으로 하위영역 중 애착 평균점수가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Jun 등[24]의 평균 4.1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강화됨으로[8] 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2.17점(5점)으로 중간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평균이 1.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Seong과 Nam[41]의 연구 결과 평균 2.83점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수준이 미흡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전문의로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는 대책이 시급한 문제이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9.7%이상으로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남에[42] 따라 스마트폰 사용 경향과의 관련성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1]. Seong과 Nam[41]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32%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중독위험군이 많았으며, 사용자의 62.1%가 주로 SNS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면대면 소통보다는 대인관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학생들 간에 소통의 어려움이 생겨 결국에는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43]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가상공간에서의 토론식 교육보다는 직접 상호간 토의할 수 있는 교육적 중재와 동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간호전문직관과 대인관계능력과는 부적 상관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과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낮았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Kim과 Hong[40]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행동이나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주위의 지지체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조차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전문직관과는 정적 상관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도 높았던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과 대인관계능력에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지닌 영향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높을 수 있으나 관련 하위요인 간 인식되는 차이와 변인 간 영향요인의 차이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에는 부적 영향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이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호 친밀감을 나누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상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인관계임을 주장했던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였다[44].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45]와는 대조적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심각성 정도를 낮게 인식할

수 있기에 지지 자원에 대한 자각은 매우 중요하며, 스스로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는 간호전문직관과 직접적 영향관계는 없으나, 대인관계능력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 자기에서 부적 영향을 받지만, 간호전문직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인 대인관계능력은 억제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현적 자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의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심리적 영역이므로[46] 자기에 성향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중재를 제공시에는 이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상의 불일치와 불완전함을 타인이 회복해 주길 바라며, 타인의 인정과 수용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내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19]. 따라서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과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때로는 과도한 의식으로 인해 부담으로 작용하여 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성향은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40].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을 적응시켜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경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로서 대상자들과 직접적인 소통방식과 대면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기에 그 자신의 성격적, 정서적 정신 건강문제는 중요하다. 즉 과도하게 소심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타인의 언행에 대해 쉽게 상처를 받는 내현적 자기에의 성향이 높다면 자신의 간호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을 감행하거나, 경력단절과도 같은 극단적인 결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제시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으로는 개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의 폭넓은 교우관계를 지원하고, 대상자들의 낮은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거나 부각시키며, 사회의 여러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자신감과 긍정적 성취의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주로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연극 또는 예체능 계열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격으로의 변화와 함께 대인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은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에 교육자로서 적극적인 개입과 전략은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실제적인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외적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에 앞서 교육현장에서의 노력도 연동되어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이러한 특성이 간호사의 직업적 만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과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매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적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에 의의를 두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J지역 3곳의 간호대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에 평균점수는 3.29점(5점)으로 일반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는 2.20점(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4.14점(5점)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 평균점수는 2.17점(5점)으로 중간수준보다도 낮았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는 간호전문직관( $r=-.203, p<.001$ )과 대인관계능력( $r=-.359, p<.001$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 $r=.607, p<.001$ )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전문직관( $r=.392, p<.001$ )과는 정적 상관이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 $r=-.249, p<.001$ )과 대인관계능력( $r=-.444, p<.001$ )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는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는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었기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

행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변인들과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각각의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s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measures*, (2018), <http://www.mohw.go.kr/>, (accessed Jan., 2, 2019).
2.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pp.42-49, (2015).
3.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6, No.6, pp.1091-1100, (2005).
4. D. 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 Vol.32, No.2, pp.201-204, (2000).
5. S. Y. Choi, M. A. Lee,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4, No.3, pp.234-244, (2018).
6. J. Keeling, J. Templeman,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3, pp.18-22, (2013).
7.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8. E. H. Hw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No.1, pp.97-108, (2017).
9. C. Lasch,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Warner Books, (1979).
10. K. Dombek, *The Selfishness of Others: An Essay on the Fear of Narcissism*, New York: FSG Originals, (2016).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12. S. Akhtar, A. Thomp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13. Y. M. Kwak,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Depress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6, No.2, pp.1-19, (2015).
14. S. G. Seo, H. D.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Between Narcissistic Disposition Types and Aggress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9, No.1, pp.85-101, (2018).
15. M. J. Kim, E. J. Kim,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ijin Kyofusho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Isol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4, No.4, pp.637-655, (2018).
16. J. U. Kim, S. R. Lee,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4, pp.530-540, (2018).
17. H. Y. Oh, K. Park,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 pp.335-354, (2017).
18. H. S. Kim, J.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2, pp.223-244, (2015).
19. J. S. Lee, M. H. Hyun,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passive coping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covert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4, pp.161-181, (2012).
20. H. K. Koo, J. N. Kim,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2, pp.609-636, (2014).
21. S. Cohen,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99-125, (1983).
22. M. K. Demaray, C. K. Malecki, "Critical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student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17, pp.213-241, (2002).
23. J. Y. Kim, H. S. Park,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pp.545-559, (2015).
24. W. H. Jun, M. J. Jo, H. J. Na,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5, No.3, pp.219-228, (2015).

25. Y. K. Kwan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26.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34-642, (2016).
27. H. W. Kwak, *Effect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15).
28. J. H. Yun,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2016).
29. J. O. Jeong,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6).
30. S. H. Gang, N.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69-990, (2002).
31. Y. H. Seo,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Vol.35, No.4, pp.1156-1174, (2018).
32. Y. H. Seo,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7, No.11, pp.274-289, (2017).
33. C. E. Cutrona, D. W. Russell,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stres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1, No.1, pp.37-67, (1987).
34. Y. R. Yoo,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Self Conceal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5)
3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pp.991-1008, (1988).
36. C. D. Kim, S. I. Kim,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skills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Group Counseling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Center*, Vol.35, No.1, pp.83-96, (1999).
37. S. Park, M. Kwon, M. Baek, N. Han, "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Ccontents Association*, Vol.14, No.5, pp.289-297, (2014).
38. K. J. Preacher, D. D. Rucker, A. F. Hayes,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42, No.1, pp. 185-227, (2007).
39. J. H.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Immers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repancy and Interpersonal Stress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7).
40. S. K. Kim, H. Y. Hong,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the Relation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



- Dysregul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8, pp.392-407, (2018).
41. M. H. Seong, H. R. Nam,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yle,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steem on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2, pp.61-70, (2017).
  4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Usage about Internet*, <https://www.msit.go.kr/>, (accessed Jan., 10, 2019).
  43. J. H. Park, J. H. Park,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8, No.1, pp.185-194, (2017).
  44. J. G.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s Covert Narcissism and Military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2014).
  45. E. Y. Jeong,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 The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8).
  46. Y. J. Ha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and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7).